

금호석화, 中 지방정부 협력 확대… 배터리 등 현지사업 박차

박찬구 회장, 웨이하이시장 회동
화학·소재 등 사업 협력방안 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발표되지 않아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신소재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으로 사업 협력 범위를 넓힌다. 현지 골프장 운영을 중심으로 이어온 협력을 화학·소재 등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확대해 중국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31일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지난 2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쿵판핑 웨이하이시장과 만나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총괄시장과 백종훈 대표이사 사장, 고영도 관리본부장 부사장, 박점규 금호리조트 전무 등도 참석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웨이하이의 협력은 지난 2021년 금호리조트가 그룹에 편입된 이후 본격화됐다. 금호리조트는 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앞줄 왼쪽)이 쿵판핑 웨이하이시장(앞줄 오른쪽)과 회담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둥성에서 아시아나웨이하이컨트리클럽(AWCC)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수 이후 골프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뉴얼했다. 이후 한국과 중국 골퍼를 유치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웨이하이 당국과 협력해왔다.

이번 회동에서는 기존 관광·레저뿐 아

니라 화학·소재 등 산업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웨이하이는 첨단 제조와 신소재, 배터리 등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합성 고무와 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규 투자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쿵시장은 “웨이하이는 첨단 제조, 신소재, 배터리 등 미래 산업 체계를 바탕으로 금호석유화학그룹과 협력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며 “변함없이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상호 이익과 상생 협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웨이하이가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제안한 데에는 한국과 쌓아온 경제 교류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웨이하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교역 확대를 추진해왔다.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도 활발하다. 웨이하이시 상무국에 따르면 현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995곳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의 54.1%를 차지하며 누적 투자액은 50억 달러(약 7조원)를 넘어섰다. 한국과 거래하는 웨이하이 기업도 2600여곳에 달한다.

웨이하이와 한국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웨이하이의 대한국 수출입은 지난 10년간 67.8% 늘었

며 2024년에는 통상구 기준 중국 내 3위를 기록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한국 수출 역시 7년 연속 산둥성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중국 전체 1위에 올랐다.

웨이하이는 이 같은 교역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과의 협력 분야를 산업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와 신소재, 배터리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금호석유화학그룹과의 회동에서도 관련 분야의 협력 확대와 행정 지원 의사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중국 골프산업의 발전과 함께 웨이하이와 한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 정부에서도 상호 협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파운드리업체, 주요공정 가격인상… 수익성 개선 ‘가속’

AI 관련 주문증가·수급 불균형 지속
삼성전자·TSMC 등 추가 인상 전망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첨단·성숙공정의 공급이빠듯해지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가격이 뛰고 있다. 삼성전자가 4·5나노미터(nm) 등 주요 공정 가격을 올린 가운데 시장 1위 TSMC도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운드리 업계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순수 파운드리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했다. AI 관련 주문 증가와 생산 능력 재배치로 첨단·성숙공정 모두 수급 불균형이 이어진 영향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하반기에도 파운드리 웨이퍼 평균판매가격(ASP)이 추가 상승하고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4나노 공정인 SF4 신규 주문 가격을 미국과 중국 고객 대상으로 전월보다 10~15% 인상한 것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

알려졌다. 다만 고객 가격은 5~10% 올랐다. 5나노 SF5 웨이퍼 가격도 10~15%, 8나노 공정은 10% 가까이 상승했다.

가격 인상 배경에는 AI 가속기와 고성능컴퓨팅(HPC)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TSMC의 첨단공정 생산능력이 빠듯해지면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일부 고객들이 삼성전자와 인텔 등 경쟁 파운드리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의 SF4 생산라인도 지난해 말부터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SMC의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매체 화알제렌원은 지난 30일 트렌드포스와 노무라증권 등의 자료를 인용해 TSMC가 공급이 부족한 일부 3나노(N3) 공정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2027년 초까지 N2·N3·N5 등 첨단공정 가격을 추가로 5~10%, N12·N16·N28 등 일부 성숙공정도 최대 10%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성숙공정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은 평균 5~15% 올랐다. AI용 전력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데다 주요 업체들이 성숙공정 생산능력을 줄이거나 고부가 제품으로 재배치하면서 공급이 빠듯해진 영향이다. 트렌드포스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TSMC의 독주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TSMC는 2분기 글로벌 순수파운드리 시장에서 73%의 점유율로 1위를 지켰다. 삼

성전자는 7%로 2위에 자리해 양사 간 격차는 66%포인트에 달했다.

삼성전자에는 가동률 상승과 웨이퍼 가격 인상이 파운드리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은 SF4·SF5 수요 확대와 함께 2나노 공정 수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AI·HPC용 제품과 HBM용 베이스다이 수요 확대도 하반기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큰 만큼 2나노 경쟁력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삼성전자가 2나노 수율을 안정화하고 대형 고객사의 양산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파운드리 실적 개선의 관건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는 고정비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가동률이 올라가고 웨이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우호적인 요인”이라며 “최근 AI 수요 증가로 첨단공정을 중심으로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산업생산 제자리 걸음… 소매판매 2.4% ↓

데이터처 7월 산업활동동향
전산업생산 포함… 설비투자 7.5% ↑

7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제자리걸음했다. 이 중에서도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은 줄었는데, 서비스업의 경우 4년5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달 소비도 2% 넘게 줄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크게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증감은 전달과 비교해 포함(0%)으로 집계됐다.

전산업생산은 중동발 충격으로 4월(-0.5%)과 5월(-0.4%) 감소한 이후 6월(2.4%)에 6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포함에 그쳤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0.2% 늘었다. 6월(6.7%)에 비해 증가세가 꺾인 모습비난. 전자부품(20.7%), 1차금속(4.2%) 등에서 생산이 증가했지만 자동차(-4.5%)에서 부진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1.5% 감소했다. 내수 출하(-0.9%)와 수출 출하(-2.3%) 모두 감소다.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97.2%로 3.4%포인트(p) 올랐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9%로 0.2%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1.3% 감소하며 3개월 만에 후퇴했다. 이는 2022년 2월(-1.7%)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금융·보험(-4.8%)과 전문·과학기술(-2.

7%) 등에서 감소했고 정보통신(3.5%) 생산은 증가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2.4% 뒷걸음질했다. 6월 큰 폭(2.7%)으로 증가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승용차 등 내구재(-7.7%),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로 백화점(-5.6%), 편의점(-0.9%), 승용차·연료소매점(-5.1%), 전문소매점(-2.4%), 무점포소매(-3.1%) 등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다만 대형마트(4.3%), 면세점(2.2%), 슈퍼마켓·잡화점(1.0%)에서는 증가했다.

이에 반해, 설비투자는 7.5%나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15.4%) 투자가 크게 늘었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토목(18.5%)에서 공

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7.4%)에서 줄면서 1.1% 감소를 나타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소비가 전월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용차 생산은 6월에 크게 증가했다가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은 7월에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매판매 감소에 대해서는 “승용차 판매의 경우 6월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로 앞두고 수요 증가 등에 따른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하락했다”며 “가전·통신기기 판매도 전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판촉행사가 소멸하면서 소매판매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대규모 증설 나선…’서 계속

삼성·SK 법인세 167% ↑

삼성전자는 세전이익 153조2682억원에 법인세비용 34조4185억원을 반영해 실효세율이 22.5%였다. SK하이닉스도 세전이익 174조3169억원에 약 40조원의 법인세비용을 반영해 실효세율이 23.0% 수준이었다. TSMC는 실효세율이 17.5%였고, 마이크론은 2026회계연도 3분기까지 14.8%로 국내 두 업체보다 낮았다.

다만 TSMC와 마이크론도 이전보다 실효세율이 올랐지만 국내 업체와의 격차는 여전했다. TSMC는 올해 1분기보다 1.3%p 상승했다. 회사는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면서 관련 세금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론도 전년 동기보다 3.3%p 올랐다. 싱가포르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줄어든 영향이다.

실효세율뿐 아니라 실제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커졌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총 11조20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7%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3조9876억원, SK하이닉스가 7조2207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2019년 상반기 12조661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납부 시점 등의 차이로 회계상 법인세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처럼 반도체 기업의 세금 부담과 투자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세제 지원도 투자 경쟁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20%를 세액공제한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였다.

특히 AI와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요 고객사의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장기 수요에 맞춰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투자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